국민의힘

책자형 선거공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선거

20년 검증된

참 일꾼!

달서구 제7선거구(도원동, 상인2동, 상인3동)

2 기호

김해철

“20년의 땀방울 멈추지 않는 두바퀴!”

도원동, 상인2동, 상인3동 주민 여러분!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덕분에 20년 달서구의회 의정 활동과 두 번의 구의장직을 수행하며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동네를 잘 알기에 주민의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겨왔습니다.

이제 그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대구시의원에 도전합니다. 20년 전 처음 시작할 때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김 해 철 올림

제7대·제9대 달서구의회 의장 역임

“달서구 아이디어 뱅크”

“열심히 일했습니다!”

★ 달서구 보훈문화 확산 및 공훈선양지원 조례안 ★
(전국최초)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 중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와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안전부가 우수조례로 선정

- **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대표발의)**
- **달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 관한 조례(대표발의)**
- **달서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달서구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달서구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달서구 영구임대주택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 달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 저장강박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청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 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달서구 의로운 구민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달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언론과 주민들이 인정한 의정활동

- 서면질문 197회
- 구정질문 25회
- 5분자유발언 40회
- 전국의정봉사상, 대상수상 4회
- 경제정의실천연합 우수의정활동상 수상등 다수

달서구의원 5선경험! , 시의원(도원동, 상인2, 상인3동)도전

국민의힘 2 김해철

지금부터 김해철의
준비된 생활정치가 시작됩니다.

20년 의정활동! 준비된 시의원

김 해 철

시의원이 되면 더 힘있게!

| 상화로 입체화 사업(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추진 |

* 상화로 입체화 사업, 주민 불편 없는 '무결점 공사'를 약속합니다

|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명품생활권 조성 |

* 상인3동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을 꼼꼼히 마무리해, 주민 모두가 체감하는 활력 넘치는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재건축사업 행정적 지원 강화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적극추진 |

* 주민이 주인되는 재건축, 행정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 학교 통학로 개선 및 교육시설 지속 점검 유지 보수 |

* 우리 아이를 위한 '안심 교육 환경',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전국 지방 의정 봉사 대상(4회)

「언론이 본 김해철 의장」

每日新聞 2023년 10월 24일

[민선 8기 출범 1년, 의장에게 듣는다]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신청사 건립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마무리… 대구 서부권 시대 디딤돌 될 것"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 달서구의회 제공

"우리 달서구의회는 지난 1년간 겸손한 자세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대구 서부권 시대를 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지난 1년간 달서구의회를 이끈 김해철 의장은 "12번의 회기를 통해 의원 발의 조례 79건을 포함, 모두 19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라며 "아울러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17건의 지적 · 건의사항을 처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구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에 방점을 찍고 의회를 운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만큼 의원들의 역량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에 구의원을 대상으로 교육 · 연구활동을 지원했고,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를 1년간 20회 운영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달서구의회는 특히 시대적 화두인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녹색 성장에 관한 토론회를 가장 많이 개최했다. 김 의장은 "토론회에 나온 아이디어가 집행부의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라며 "의회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수렴한 달서구청은 올해 7월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기후환경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했다. 달서구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구시청 신청사 이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최근 대구시가 시청 신청사 예정부지(옛 두류정수장) 일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한 것에 대해 김 의장은 "그동안 건립방식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 덕분에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마무리가 됐던 것 같다"라며 "우리 의회도 신청사가 대구의 화합과 도약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달서구는 신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도심과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의 성서공단호림역 신설도 예정돼 있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대구의 중심축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중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다가올 '대구 서부권 시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그는 "인구 54만명에 육박하는 달서구는 예산만 1조원이 넘는 거대 지자체"라며 "앞으로 들어설 신청사와 성서공단호림역은 대구 서부권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우리 달서구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행정과 산업, 교통, 지역상권, 주거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每日新聞 2022년 12월 26일

대구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 대구적십자사에 사랑의 꾸러미 후원금 500만 원 전달

대구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해철)는 26일 북구의회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협의회(회장 한명아)에 '대구사랑 지역사랑 사랑의 꾸러미' 사업을 위한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구사랑 지역사랑 사랑의 꾸러미'는 화원산 백미와 평광산 햇사과 등 대구에서 생산된 특산품 및 부식품 등을 포장해 대구시 8개 구 · 군 소외어르신 등 취약계층 600가구에 전달해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구시협의회의 프로그램이다. 김해철 대구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도 드리고 추운 날씨 속 홀로 생활하시는 어려운 분들의 팍팍한 삶에 온기도 전해드릴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사랑의 꾸러미 나눔 활동과 같이 대구 구 · 군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랑의 꾸러미 제작을 위해 대구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와 대구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전국협의회 등이 기부에 참여했으며 구 ·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구적십자사 박명수 회장, 배인호 · 박명희 부회장, 적십자봉사회 대구시협의회 한명아 회장 등 관계자들이 직접 꾸러미 제작에 힘썼다.

영남일보 2022년 12월 23일

[대구 구 · 군의장에게 듣는다]

김해철 달서구의장 "좌초 위기 신청사 건립, 市에 이행 촉구"

"시의 독단적 결정 주민들 반감 숙의 거쳐 대응책 마련해갈 것" 대구시 구 · 군의장협의회장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처리 요구

김해철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대한 대구시의 이행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달서구의회 제공>

"달서구의원들은 대구시민이자 신청사 예정지 주민으로서 신청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이행 의지를 촉구하겠습니다." 김해철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지난 20일 영남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대구시 신청사 이전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달서구의 가장 큰 이슈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다. 최근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로의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달서구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 의장은 "54만 달서구민의 염원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9년 12월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를 유치할 수 있었다. 신청사 건립은 달서구가 대구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기회"라며 "하지만 대구시는 시민이 민주적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인 결정에 대한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은 대구시의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 반감이 있다. 시민연대, 지역 주민 협의체 등 구성원들과 숙의를 거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대 달서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5개월이 흘렀다. 김 의장은 "지난 6 · 1 지방선거에서 구민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 덕분에 의회가 잘 구성됐다"며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역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여론을 청취했다. 새롭게 출발한 달서구의회는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구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민생 현안들과 역점시책들에 대해선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통해 선심성 · 예산낭비성 행정을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제9대 대구시 구 · 군의회 의장협의회 전반기 회장직도 역임하고 있다. 이 자격으로 대한민국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속해 있으면서 대구시 구 · 군의회와 전국협의회 사이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시 · 군 ·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4일 달서구에서 열린 시 · 도 대표회의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일자리와 소득,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균형과 격차는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은 어디에 살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시대'를 담당하는 조직과 기능의 정비는 매우 시급한 과제다. 지역주도 균형발전 정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누구와 비교해도
시의원은 역시 김해철!
국가 유공자 유족 김해철 걸어온 길

학 력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경 력

- 현)제9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전반기 의장)
- 전)대한민국 시, 군, 구의원 의장협의회 부회장
- 전)대구광역시 구, 군 의장협의회 회장
- 전)대구광역시 달서구 결산 검사 대표
- 전)대구광역시 달서구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 전)제7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후반기)
- 전)제9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전반기)
- 전)영남대 총동창회 이사

수 상

- 전국 지방 의정 봉사 대상(4회)
- 경실련 우수 의정 활동상

| 선거사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로 12
| 전화번호 | 053-637-9973 hp:010-3525-9973
| 이메일 | khc1215@hanmail.net

"유공자의 명예로, 시민의 일꾼으로!"

*이 선거 공보는 '공직선거법 제 65조'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